

# 전 세계인 반한 SK의 '탄소감축 행동'... 전시관 '핫플' 인기

친환경 제품, 대체식품 푸드 등 탄소감축 기반 신기술 전시관 오감체험 입소문 타고 3만명 몰려 최태원 회장도 현장 찾아 힘 보태

SK그룹 '탄소감축 행동'이 세계인 눈길을 사로잡았다.

SK가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3만여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 힘은 '탄소감축 행동'을 주제로 구성된 40여개의 친환경 기술·제품, 대체식품 푸드 트럭 등이 SK그룹의 넷제로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도 직접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넷제로 '오감 체험' 입소문

SK 전시관은 탄소감축을 주제로 한 체험과 시연에 초점을 맞춰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는 설명이다.

SK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열린 'CES 2023' 기간 중 그룹 통합 전시관을 찾은 누적 관람객이 3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CES 2022' 기간 동안 SK 전시관을 찾은 1만1000여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개막 첫 날인 5일 7500여명이 찾은 데 이어 6일에는 9500여명, 7일과 8일에도 약 1만3000여명이 SK 부스를 찾았다. 실제로 SK 부스를 찾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 측은 B2B관이지만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관들이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여 준다는 설명이다.

SK 관계자는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CES 2023' 야외 전시장 'SK 푸드트럭'에서 발효 단백질로 만든 크림치즈를 시식하고 있다. /SK그룹

같은 식물 소비재를 전시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 등 부품과 소재 중심의 B2B 기업 전시관에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양한 볼거리와 시식 등 '오감 체험' 요소들로 '탄소감축'이란 다소 무거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CES 2022'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2억톤)을 줄이겠다고 공표하며 '동행'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민데 이어 이번에는 '함께(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자)'를 내걸었다.

이에 SK는 자유의 여신상 등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물에 잠기는 등의 가상환경을 통해 인류가 기후에 맞서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SK(주)등 SK 8개 계열사와 미국 플러그 파워(Plug Power), 테라파워(Terra Power),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등 10개 파트너사가 함께 'SK, 아라운드 에브리 코너(모퉁이에 있는 SK)' 구역에 선보인 40여개의 친환경 기술과 제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 국내 4대 총수중 유일하게 CES2023 현장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늘 고민하는 주제인 탄소감축을 잘 풀어서 전시해 뒀고 기쁘다"

며 "환경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열사 별로 SK텔레콤은 가상 시뮬레이터로 선보인 친환경 도심항공교통(K-UAM), SK(주)파트너 기업인 미국 할리오(Halio)의 스마트클래스(전기차 유리 투명도를 조절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 등을 소개했다.

SK가 야외 전시장에 설치한 '지속가능식품 푸드트럭'은 'CES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나흘 간 1만5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해당 푸드트럭에선 우유빙수, 아이스크림샌드 등을 시음하며 미래 국내 유통망에 대해 설명했다.

## ◆경영진 총출동... 탄소감축 동행

SK 최고 경영진들은 CES 기간 중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파트너사 등 글로벌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넷 제로 동행' 강화 등을 도모했다. 최태원 회장이 수행원 코로나 확진 이후 당초 계획한 비즈니스 미팅들을 화상 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 것 외에 최태원 그룹 수석부회장도 CES를 찾은 글로벌 기업인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장동현 SK(주) 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등은 국내외 기업 전시관 수십 곳을 둘러보며 최신 기술 변화상을 관찰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SK텔레콤 유영상 CEO는 각각 웰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 반도체 및 AI 사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지오센트릭 나경수, SK E&S 추형욱, SK에코플랜트 박경일, SKC 박원철 CEO 등도 각기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친환경 사업

확대 방안을 협의하거나 투자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CES 기간 중 SK 전시관을 찾은 글로벌 파트너 경영진은 SK와 '탄소감축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솔리드 파워의 존 제이콥스(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SK그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리오의 디미트리 립킨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은 "이번 CES에서 'SK와 친구들'이 지구를 더 나은 곳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완벽히 조망해 보여줬다" 말했다.

SK그룹은 '탄소감축 행동'이란 전시관 주제에 걸맞게 전시관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약 575톤 추산)를 상쇄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전시관 내 '넷 제로 기부 토큰 게임'에 참여해 쌓은 포인트(약 1억원 상당)에 SK가 매칭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CES에서 SK 외 다른 국내외 기업들도 '탄소감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등 넷 제로가 글로벌 중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과 관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탄소감축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금융권 수장들, CES서 '열공'... '빅블러 시대' 성큼

조용병 신한 회장, 함영주 하나 회장 신기술 제품, 최신기술 동향 살피고 새로운 사업 접목 가능성 등 타진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3'에 대거 참석하면서 '빅블러(Big Blur)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을 직접 찾았다.

그동안 CES는 주로 IT 관련 인사이거나, 소비자들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금융수장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인사까지 대거 출격하면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Big Blur)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이 금융사도 IT와 융합된 신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3'에서 신한은행의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한은행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들과 함께 CES를 찾았다. 전 세계 최신기술 동향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그룹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함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하나금융그룹이 직접 투자한 에이슬립(Asleep) 부스를 찾았으며 국내의 기업 부스를 돌아보면서 디지털 미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휴와 투자,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대규모 지분교환을 동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외부 기업과의 협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룹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주(오른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여한 LG전자의 전시 부스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금융

신한금융그룹에선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은행·카드·증권·캐피탈의 디지털 담당 임원 등 실무자 30여 명이 출장길에 올랐다. 디지털전환(DT)이 핵심 경영과제로 떠오르면서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 단독으로 CES에 부스를 차려 지난해 11월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Shinamon)'을 선보였다. 시나몬은 신한은행이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확장 및 연결해 만든 가상공간으로,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계가 가능하다. 기존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 다른 글로벌 은행들과 다른 행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CES 2023 참가를 통해 앞으로 마켓플레이스와 बैं킹이 융합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시나몬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선도 금융기업으로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 산하 KB경영연구소의 글로벌·산업 분야 담당 연구역과 KB국민은행 디지털 담당 부서 실무자, 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 실무자 등 20여 명이 이번 CES를 참관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인데,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사업 접목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금융권의 핵심 경영과제가 된 만큼 금융지주 간 디지털 부분의 역량 강화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